

광주일고 하키 춘계대회 우승 “38년 만이야~”

결승서 성일고에 1-0 승
전국대회 우승은 11년 만
MVP 최윤성·득점상 최성진

광주일고 하키부가 38년 만에 전국춘계남녀하키대회 정상을 탈환했다. 지역에서는 이번 우승이 광주일고 하키 부활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양준호 감독이 이끌고 있는 광주일고는 지난 31일 강원도 동해 선라이즈 국제하키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6일째 남자 고등부 결승에서 성일고를 1-0으

로 물리쳤다. 이번 우승은 지난 1983년 같은 대회 우승 이후 38년만이다. 전국 규모 대회 우승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광주일고는 1쿼터 5분만에 터진 1골을 지켜내 정상에 올랐다. 김정희는 김단우의 센터링을 터치슛으로 연결해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광주일고와 패권을 다툰 성일고는 지난해 2관왕을 차지한 고등부 강자여서 우승의 기쁨은 더 컸다. 광주일고는 이번 대회 8강전에서 이매고와 2-2 무승부를 기록했으나 승부차기에서 4-1로 승리해 4강에 진출했다. 이어 4강전에서 계산고를 5-1로

대파하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양준호 감독은 지도자상, 정환욱 코치는 지도자상, 최윤성은 최우수선수(MVP), 최성진은 득점상을 받았다. 우승 멤버는 고연훈·김정희·최윤성·홍대천·김민재·정건영·최인하·황인혁(이상 3년), 김단우·유창민·최성진(이상 2년), 위연용·유성진(이상 1년)이다. 양준호 감독은 “정환욱 코치와 선수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헌신적으로 훈련한 덕분에 좋은 결과 나온 것 같다”며 “우재학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광주 하키향회, 충동창회의 지원과 지지가 우승의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국춘계하키대회 우승 후 양준호 감독을 행개례 치는 광주일고 선수단.

2023년 전남체육전 완도에서 열린다 도체육회, 개최지 최종 확정

2023년 제62회 전남도체육대회가 완도에서 개최된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31일 전남체육회관에서 제33차 이사회를 열고 제62회 전남도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안)을 심의 의결, 완도군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2023년 4월 중 4일간 완도 일원에서 전남 22개 시·군이 참가한 가운데 열

린다. 도체육회가 제62회 대회 개최지를 공모한 결과 완도와 구례, 장성이 유치를 신청했다. 장성군이 지난 3월 유치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완도와 구례가 최종 경합했다. 완도는 한 해 평균 10개 이상의 전국·도단위 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 메카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 문화체육센터가 한데 자리잡고 있고, 180여개의 숙박업소를 보유한 인프라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군은 오는 2022년까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총 45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 6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새 출발

창립총회 열고 법인 설립 의결

광주시체육회가 오는 6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새출발한다. 이는 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조치다. 이른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로, 지난해 12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된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 법안 제18조에서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했기 때문에 현재 임의단체인 전국 시·도체육회를 법률에서 정한 사단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체육회는 오는 6월 9일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된다. 시체육회는 지난 31일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광주시체육회창립(발기인)총회’를 개최했다. 김광아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5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준비위원들이 발기인이 돼 시체육회 정관, 임원 선임, 출연재산, 주사무소 설치 등 법인설립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시체육회는 지난 1월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



31일 열린 광주시체육회 법인설립 창립총회에서 법인화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다.

회를 구성하고 법인화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창립총회 이후 4-6월 광주시 인가신청 및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게 되며 사무인계가 마무리되면 법인설립이 완료된다. 김선광 시체육회장 직무대행은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광주시 인가와 법인 설립등기까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체육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인이 설립되면 안정적 예산확보, 조직의 안정화 등 체제가 탄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GS칼텍스 여자 프로배구 첫 3관왕 위업

KOVO컵·정규리그·챔프전 우승

막강 ‘삼각편대’를 앞세운 GS칼텍스가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하며 여자 프로배구 사상 첫 트레블(3관왕) 역사를 썼다. GS칼텍스는 지난 30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챔피언 3차전에서 메테타 러츠(37점)-강소휘(15점)-이소영(12점)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흥국생명의 추격을 뿌리치고 세트 스코어 3-2(25-23 25-22 19-25 17-25 15-7)로 승리했다. 이로써 GS칼텍스는 5전 3승제 챔피언전을 3연승으로 끝내고 적지에서 우승 축포를 쏘았다. GS칼텍스는 2007-2008시즌, 2013-2014시즌에 이어 7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로 챔피언 정상에

섰다. 지난해 9월 제천 KOVO(한국배구연맹)컵 대회, 정규리그를 제패한 GS칼텍스는 트레블의 위업을 이뤘다. 여자부에서 KOVO컵 대회, 정규리그, 챔피언전을 한 시즌에 모두 휩쓴 것은 GS칼텍스가 사상 최초다. 반면 최강의 진용을 자랑하며 ‘어우름’(여자피 우승은 흥국생명)으로 불렸던 흥국생명은 조라한 결말을 맞았다. 11년 만에 국내 리그에 복귀해 우승을 꿈꿨던 ‘배구 여제’ 김연경도 씁쓸하게 시즌을 마감했다. 흥국생명은 개막 10연승을 질주하며 독주 체제를 구축했지만 시즌 막판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으로 팀 전체가 흔들리더니 1위마저 빼앗겼다.

/연합뉴스

박신자, 아시아 첫 농구 명예의 전당 헌액

선수 부문…국제농구연맹 발표

1967년 국제농구연맹(FIBA) 세계여자선수권 대회 최우수선수(MVP) 박신자(80·사진) 여사가 아시아 국적 최초로 FIBA 농구 명예의 전당 선수 부문에 헌액됐다. FIBA는 31일(한국시간) 2020년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를 발표했다. 선수 9명과 지도자 3명이 2020년 명예의 전당에 가입하게 됐으며 선수로는 박신자 여자 외에 현재 미국프로농구(NBA) 브루클린 네츠 사령탑인 스티브 네시(47·캐나다) 등이 이름을 올렸다. FIBA 농구 명예의 전당에 한국인이 헌액된 것은 2007년 공로자 부문에 뽑힌 고(故) 윤덕주 여사 이후 이번 박신자 여사가 두 번째다. FIBA 명예의 전당 선수 부문에 아시아 국적자가 헌액된 건 이번 동시에 선정된 박신자 여사와



일본의 사코 겐이치(51)가 처음이다. 박신자 여사는 1967년 제코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를 준우승으로 이끌며 대회 MVP에 선정되는 등 세계 정상급 선수로 맹활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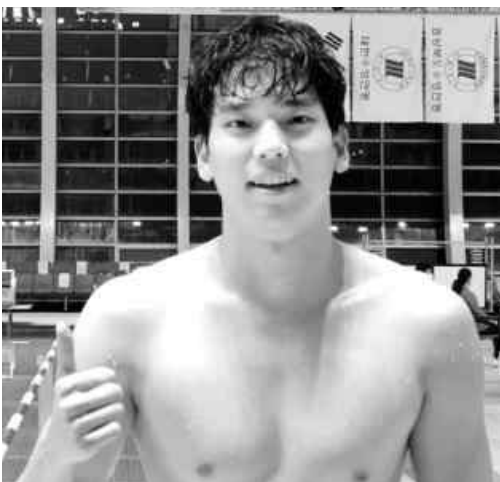
또 1999년 여자농구 명예의 전당 선수 부문에 역시 아시아 최초로 헌액됐으며, 현재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박 여사의 이름을 딴 박신자컵을 해마다 개최하며 유망주들에게 출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 여사는 최근 여자프로농구 부산 BNK 지휘봉을 잡은 박정은 감독의 고모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이주호, 남자 배영 100m 한국신기록

이주호(26·아산시청·사진)가 한국 수영 선수로는 처음으로 배영 100m에서 53초대 역명을 펼쳤다. 이주호는 지난 31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1회 김천전국수영대회 남자 일반부 배영 200m 경기에서 53초71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5월 1일 열린 국제대회 국가대표선발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종전 한국 기록(54초17)을 약 3년 만에 다시 0.46초 단축했다. 한국 선수가 배영 100m에서 53초대에 진입한 것은 이주호가 처음이다. 이주호는 2위 원영준(대전시체육회·55초91)에게 2초 넘게 앞서서 터치패드를 찍을 만큼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쳤다.

이로써 이주호는 올 시즌 1호 한국 신기록 수립 선수가 됐다. 이번 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된 전국수영대회로, 이날 이주호의 레이스 이전까지는 한국 기록을 깬 선수가 없었다. 이주호는 올해 7월로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 기준기록(53초85)도 통과했다. 이주호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딴 100m뿐만 아니라 200m 한국 기록도 보유한 배영 종목의 한국 최강자다. 배영 200m에서는 지난해 11월 열린 2020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1분57초06의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다. 당시 대회에서는 배영 200m에서만 도쿄올림픽 기준기록(1분57초50)을 통과했으나 이번엔 배영



100m까지 올림픽 무대 도전 자격을 갖췄다.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신기록 포상금 100만원도 받는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고질라 VS. 콩
2관	자산어보, 최면
3관	자산어보, 아무도 없는 곳, 최면
4관	자산어보
5관	자산어보
6관	고질라 VS. 콩
9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7관 씨네마	미나리, 해질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8관 씨네마	커피오버티, 싱크로닉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4. 01.(목) ~ 04. 30.(금)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 기획공연 포라크스 아카펠라 그룹 EXIT (One Voice)
일시 : 2021. 04. 11.(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